

Hague Yang: Handles

May, 2020 | .

page 1 of 4

Explore Hyundai Card Events



©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Photo by Denis Doornik

Haegue Yang: Handles

양혜규 작가와 MoMA 큐레이터의 토크

현대카드 단독 후원으로 진행한 양혜규 작가의 첫 번째 뉴욕 현대미술관 개인전 〈양혜규: 손잡이(Haegue Yang: Handles)〉. '현대카드 퍼포먼스 시리즈'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전시는 '소리나 움직이는 조각'이라는 조형물 6점과 대형 벽 디자인 작업으로 구성했다. 양혜규 작가는 시각적 한계에서 벗어나 오브제의 소리, 모션, 빛의 스펙트럼 등 전 영역의 감각을 자극하는 복합적 환경을 만들었다. 사머니즘부터 남북 정상회담까지, 사변적이면서도 정치적 차원을 탐구한 양혜규 작가를 수석 큐레이터 스튜어트 커머(Stuart Comer)가 만났다.

Q 이번 전시에서 보여준 새로운 설치 형태는 우리의 문화, 상황 등을 아우르는 '반(反)이분법적 모델'을 잘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反)이분법적 모델'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놀랐습니다. 정말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작가하면서 사회 구성원인 저에게 '반(反)이분법'이란 전방위적 혹은 이중적 의미를 가집니다. 제가 세상을 인지하는 방식도, 세상이 정의하는 저 역시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은 저를 유럽 사람 혹은 독일 출신 외국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을 벗어나면 모두가 저를 한국인으로 인지하죠. 이런 상반되

는 사회적 통념과 종종 마주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반응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반(反)이분법'에 힘을 실어주는 현상 유지 쪽에서 있다고 봐야겠죠.

Q 작품에서 애국주의와 민족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현세에 대한 우려가 느껴집니다. 이번 전시를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봐도 될까요?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 침묵의 커뮤니케이션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이번 전시에서 '응축'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응축은 온도가 상이한 공기가 장벽

© Haegue Yang and Greene Naftali, New York. Photo by Nick Ash



(왼쪽 페이지) 양혜규 작가의 전시 <손잡이(Handles)> 전경 (오른쪽 페이지) 방향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손잡이 조형을 작품이 움직일 때마다 전시 공간에 방울 소리가 울려 퍼진다.

에 의해 분열되면서 한쪽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자연현상을 말합니다. 응축 현상을 통해 다름을 유지하되, 설득력 있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차이를 없애려 하지 않고 유지하려는 방식을 비유한 거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다름 속에서 서로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눈물과 땀이 뒤따르겠지만요.

Q 작품 '새소리(Birdsong)'에 대해 설명해주시겠어요? 새소리는 어디에서 찾으셨나요?
새소리는 응축의 일종입니다. 무언가를

© Haegue Yang and Greene Naftali, New York. Photo by Nick A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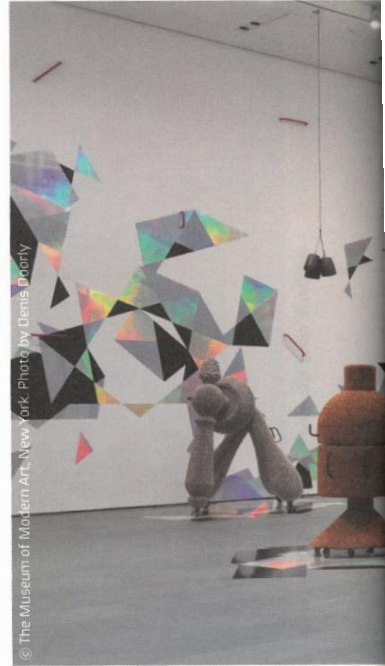


Explore Hyundai Card Events



© Haegue Yang and Greene Naftali, New York

바퀴 달린 조형물을 움직이면 몸체를 둘러싼 방울들이 은은한 소리를 낸다. 움직임에 따라 울리는 소리는 새로운 감각의 영역을 자극한다.



©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Photo by Denis Dorely

감추기도 하지만 동시에 드러내기 때문 이죠. 이번 작품에 사용한 새소리는 작년 4월에 열린 남북 정상회담 생방송의 소리를 추출한 것입니다. 한반도 분열의 상징인 비무장지대(DMZ)에서 개최된 회담 중 남북 두 정상회담 대화내용이 담긴 순간이 있었어요. 그 순간에는 오로지 그 공간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당시 베를린에서 20여 시간 동안 진행된 생중계를 관람한 시청자이던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인 순간이었어요. 정상 회담을 생중계하는 영상에서 음성을 분리해 30분간 이어진 주변의 소리를 추출했었어요. 남북 분단 이후 몇십 년간 인간

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았던 비무장지대에 남아 있는 자연의 소리를 일상적 소리로 담은 거죠.

Q 마지막으로 이번 전시의 타이틀이기도 한 '손잡이(Handles)'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손잡이로 문을 열거나 닫고, 때로는 무언가를 켜거나 끕니다. 손잡이를 만지는 행위는 언제나 그에 대한 결과를 동반합니다. 단상에서 있는 통역사를 떠올려보세요. 그가 제공하는 통역 서비스는 인지하지만, 통역사라는 존재는 인식하기 어렵잖아요? 손잡이도 이와 마찬가지로 씬이

에요. <손잡이(Handles)> 전시에서 이러한 매개체 속성을 지닌 손잡이를 통해 경계의 중간 혹은 소속의 중간에 위치하는 존재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때때로 무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소속이라는 고전적 개념이나 주어진 정체성에 안주하게 되지요. 하지만 주어진 것들에 수동적으로 소속될 경우, 소속 주체에 의한 뒤편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문지기 역할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 없이 다른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레아만 계속해서 어딘가에 도착할 수 있느냐니까요.



(위) 홀로그램을 클라주한 벽에 빛이 투영되어 무지갯빛으로 반짝인다. 천장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당시 추출한 '새소리'가 잔잔하게 흘러나온다.
(아래) 뉴욕 현대미술관 수석 큐레이터 스튜어트 커머와 인터뷰 중인 양혜규 작가.

<양혜규: 손잡이
(Haegue Yang: Handles)>

안내 뉴욕 현대미술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 휴관합니다. 재개관
일정은 뉴욕 현대미술관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장소 뉴욕 현대미술관
홈페이지 moma.org



© Photo by Rose Liu